

오는 28일 정년퇴임 지역개발 산증인 전남대 송인성 교수



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자택 서재에서 무등산을 배경으로 교단에서의 33년을 회상하고 있는 전남대 송인성 교수.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100년 가는 도시계획 세워야

‘무등산’과 ‘푸른길’로 대변되는, 청천(靑天) 송인성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가 오는 28일 교단을 떠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생체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1981년 5월 그토록 바랐던 고향의 국립대학에 몸을 담은 지 33년 만이다.

‘균형 발전’ ‘환경계획’ 중요

‘푸른길’ 세계명을 되길

꿈·열정 제자들에게 강조

“사실 모두가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발전한 모습에 대해서 외형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역발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는 지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아닌 것이죠.”

송 교수는 자신이 전공한 도시, 광주를 지난 2003년 떠났다. 언제나 집에서 무등산을 보고자 했던 그의 눈 앞에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이리저리 이사를 다녔지만, 결국 담양에 터를 잡은 것이다. 창평면에 있는 송 교수의 집 너머로는 언제나 무등산이 눈에 들어온다.

“저 산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놓여요. 저만이 아니라 광주시민 상당수가 그럴 겁니다. 미래 고민 없이 지금 순간의 이익만 쫓다 보니 지금 광주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광주·전남도 도시계획위원 등으로 왕성하게 대의 활동을 해왔던 송 교수는 줄곧 ‘반대’를 외쳤고, 결국 그만뒀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개발 논리 앞에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광주에 선사한 마지막 작품은 ‘푸른길’이었다.

“철도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주민들의 개발 주장과 광주시의 반대 속에서 분분 이것이 광주 장래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니다. 시민 의식의 성장, 시의 전환적인 자세 변화,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반대했던 주민을 50만 만나 결국 ‘적극적인 찬성론자’로 만든 송 교수의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푸른길이 계속 이어지고, 광주지역의 모든 녹지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명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100년을 목표로, 누가 단체장이 되든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장기도시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기본적인 일’일 것이다.

“물질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과정은 생략된 채 결과물만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마저 병행하지 못한 현실에서 제자들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겪게 될 갖가지 고난을 생각하면 지금도 걱정이 앞섭니다.”

송 교수는 자신의 정년퇴임식을 준비해 준 제자들에게 ‘꿈’, ‘열정’, ‘바른 가치관’이 적힌 수건을 선물하기로 했다. 정년퇴임 후에는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겠다는 노 교수가 주는 삶의 지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출하시기 농친 AI지역 가금류 정부가 수매해야

이동통제로 닭·오리 판로 막혀... 여야 촉구

조류인플루엔자(AI)로 제때 닭과 오리를 팔지 못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시기를 농친 축산물의 수매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도 정부 수매를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AI 발병농가로부터 반경 3km 내 농장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하고 있고, 반경 3~10km 내 농가의 가금류는 출하를 제한하고

있다. 이동통제 조치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정부의 가금류 수매인데, 수매 여부와 수매 규모 등은 그때그때 달랐다.

지난 2008년 3차 AI 발생 때는 가금류 1020만 마리의 살처분 보상금으로 683억원을 지급했고 수매자금으로 922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2010~2011년 4차 발생 때의 살처분 보상금은 2008년과 비슷한 670억이

었으나 수매는 전혀 하지 않았다. 또 2003~2004년 1차 AI 발생 때는 살처분 보상금으로 458억원을 지급하고 수매자금으로 281억원을 사용했으나, 2006~2007년 2차 발생 때는 가금류 살처분 보상금으로 253억원, 수매자금으로 26억원을 지출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7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로 닭·오리 등의 판로가 막힌 것과 관련해, “출하시기가 지난 가금류를 정부가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 정책위에서 ‘이동통제로 인한 출하 시기가 지난 닭의 수매를 검토하라’고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도 성명에서 AI 피해 탓에 닭을 출하하지 못한 농민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출하를 포기한 가금류 전량을 정부가 즉각 수매하라”며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교황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 결정... 8월13일 방한

1791~1888년 박해 가톨릭 순교자들- 8월15일 시복식 가능성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의 가톨릭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시복을 결정했다고 바티칸 뉴스가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황은 예상대로 8월 방한해 성모승천대축일인 15일에 시복식을 직접 주재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시복(蓋福)은 가톨릭 교회가 공경하는 인물인 복자(福者)로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복자는 성인(聖人) 이전 단계다.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는 조선왕조 때인 1791~1888년 유교를 해했다는 이유로 순교했다.

지금까지 한국 천주교에서 시복시 성된 인물은 국내 최초의 신부이자 순교자인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 가톨릭 성인 103위가 있다. 1984년 교

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방한해 시복식을 직접 주재했다.

시복이 확정되면 시복식은 보통 교황청 시성성 장관이 교황을 대리해 거행하며, 장소는 로마에서 하거나 시복 재판을 추진한 교구 현지에서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dpa 통신은 이번 시복은 교황이 오는 8월 대건에서 열리는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함에 앞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복 결정으로 교황의 방한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보인다.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교황이 아시아청년대회에 초청 받고 방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황청 해외선교기구인 아시아뉴스는 교황이 아시아청년대회 개막에 맞춰 8월13일 방한해 가톨릭의 성모승천대축일이자 광복절인 15일에 시복식을 주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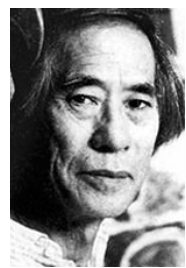
조선대 미대 초대교수 김보현 화백 별세

조선대 미술대학을 창립때부터 전임교수를 지낸 김보현(미국명 Po Kim·사진) 화백이 미국 뉴욕에서 지난 7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7세.

경남 창녕이 고향인 고인은 일본 메이지대 법학과를 거쳐 태평양 미술학교를 졸업했다. 김 화백은 1946년 귀국, 조선대 교교와 함께 만들어진 미술대학의 제 1호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교수 생활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다. 여·순천사건 때는 학생들과 아일스케치를 갔다가 좌익혐의로 몰려 구속됐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공산주의자로 몰려 옥살이와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고인은 1955년 미국 일리노이대 교환교수로 떠났고, 이후 귀국하지 않고 뉴욕에서 활동해 왔다. 1969년 화가인 고(故) 실비아 알드(Sylvia



Wald·2011년 타계) 여사와 결혼했고, 지난 2009년 뉴욕에 ‘알드 앤 김 갤러리’를 열었다.

그의 작품은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을 비롯, 프랑스 등 세계 유명 미술관과 공공건물을 소장돼 있다.

지난 2000년에는 자신의 대표작은 물론 실비아 여사의 작품 등 400여 점을 조선대에 기증했으며, 조선대 미술관에서 ‘김보현-자연의 속삭임’ 전(2010년)을 갖기도 했다.

지난 2011년 9월에는 조선대 내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김보현·실비아 알드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 온실가스 10년새 25% 증가

시, 탄소배출지도 제작... 광산 58.4%↑ 최다 동구 2.1% 줄어

광주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년 동안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가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작한 탄소배출지도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광주의 에너지 사용현황 등을 담은 탄소배출지도를 제작·분석한 결과, 광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02년 730만 4000t에서 2011년 913만5000t으로 25% 증가했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2년 5.28t에서 2011년 6.29t으로 1.01t 늘었다. 탄소배출지도는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석유 등 에너지원 소비 자료를 분석해 연도별, 법정동별(202개) 에너지 소비 특성과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담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광산구가 58.4% 늘었고, 서구(23.8%), 남구(14%), 북구(11.7%) 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다.

다만, 도시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는 동구는 2.1% 줄었다.

2011년 기준 에너지원 사용비중은 석유가 45.6%로 가장 많았고 전력 38.9%, 도시가스 14.6%, 상수도 0.9%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이번 탄소배출지도 자료를 도시계획 수립이나 도시재생 사업에 접목하는 한편 향후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감축하는 자료로 삼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50년 탄소 중립도시 구축을 위한 도시 탄소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Bakwon Kwangju Anka' (밝은광주안과)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ountain and text: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31226-증-52297호', '老安시려 노안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Advertisement for MG Kwangju Saemaeul Gold (MG 광주새마을금고) with text: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비율 최고 80%',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Advertisement for 'Kureoan (N) Gold' (클리오엔(N)골드) with text: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엔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오엔(N)골드', '1 2 3', '1899-3975 H.P 010-3598-7080'.